

지역 소식통

부안군, 메탄저감 기능성 보조제 한우 농가 공급

부안군은 도내 최초로 저탄소 사양관리를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한우 1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메탄 저감 보조제를 공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사업으로써 관내 한우사육 94농가에 총 1만8,400포가 공급되었다.

이번에 공급된 메탄 저감제는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한우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축산과장은 "이번 메탄 저감제 공급사업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공모 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31일 2024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린 '2024도시재창조한마당'에서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집수리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통 담장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모양성과 어우러진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다.

특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양성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끌어올려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관을 형성하고, 모양성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성과로 이어졌다.

심사위원단은 "고창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재생의 본보기가 되는 성과를 창출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장산트레킹 상품 인기 폭발

정읍시, 걷는 행복 만끽... 산천유수길 예정인원 200% 넘겨 버스 증차도

정읍형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내장산 히든로드'가 입소문을 타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가 트레킹 전문 여행사 승우여행사와 함께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 중인 이 상품은 '오색단풍 히든길(이하 오색단풍길)'과 '산천유수 히든길(이하 산천유수길)'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상품을 통해 가을에만 집중된 관광객 수요를 해소하고,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단풍 시즌을 시작으로 야생화 탐방이나 자연생태 관찰 등 사계절 내내 내장산을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두 코스는 관광객이 봄비는 가을 내장산에서, 상대적으로 한적하게 내장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오색단풍길'은 추령에서 장군봉과 연지봉, 내장사와 단풍터널을 거쳐 내장산국립공원 탐방 안내소에 이르는 3시간 코스로 구성됐다. 지난달 30일 첫 일정을 마쳤고 11월 2일과 6일에도 추가 일정이 진행된다.

'산천유수길'은 솔티마을에서 시작



또 캄보디아, 베트남 계절근로자 교육기관을 잇따라 방문하고, 베트남 하노이 K-market에서 복분자즙, 장어, 고구마 말랭이 등 고창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고창의 우수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역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서 30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력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근로자를 먼저 확보해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 내장산(단풍생태공원~내장산조각공원~솔티마을길~솔티숲 옛길~방문자센터~내장호플레길~내장산관광테마파크)에 이르는 길이다. 11월 6일과 9일, 13일까지 세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산천유수길'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예약을 하면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승우여행사에 따르면, 예약 인원은 초기 예상의 200%를 넘어서 시와 협의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승우여행사 관계자는 "판매 초기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져 내장산 트레킹 코스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고 첫 일정에 참여한 분들 모두 내장산이 품고 있는 매력에 감탄했다"며 "이후 모니터링 등을 거쳐 정기상품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달 31일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고창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103명에 대한 서훈 신청서를 전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확대를 건의했다.

독립운동·동학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심덕섭 고창군수, 국가보훈부 방문... 신청서 전달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달 31일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고창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103명에 대한 서훈 신청서를 전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확대를 건의했다.

심 군수는 이날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고창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공훈을 찾아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를 회복해 드리기 위해 서훈심사를 건의했다. 또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에 대한 현안도 의견을 내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 출신으로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국가특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외교사료관 등의 소장자료와 일제강점기 당시 판결문, 수형인명부, 학적부 등의 자료를 통해 독립운동 참여자 21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 중 판결문, 수형 기록 등 국가보훈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103명에 대한 공적조사를 작성했다. 운동계열별로는 3.1운동 4명, 의병 29명, 국내 항일 47명, 학생운동 22명, 국외 1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이 역사 속에 묻히지 않고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서훈심청이 의창고창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출장길 오른다

농촌인력 문제 해결·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모색

심덕섭 고창군수가 3~9일(6박7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3개국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심 군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교육기관을 방문해 계절근로자의 모집 선발 교육 과정을 확인한다. 이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진행하며 라오스 바이어를 초청하여 고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 베트남 계절근로자 교육기관을 잇따라 방문하고, 베트남 하노이 K-market에서 복분자즙, 장어, 고구마 말랭이 등 고창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고창의 우수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역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서 30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력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근로자를 먼저 확보해 농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자 선발 신규 지자체 방문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물꼬를 트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고 농가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과 체류환경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으로 이들 지역내 우수한 농촌인력을 고창군에 유입 시켜 농촌인력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것"이라며 "또한,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구절초정원·내장산, 열린관광지 문체부 공모 선정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시는 대표 관광지인 구절초 지방정원과 내장산 국립공원(내장산지구)을 관광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와 경사로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는 구절초 지방정원과 내장산지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보행로와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이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구절초 지방정원에는 무장애 관광로를 조성하고 측각과 음성 안내

판을 설치해 시각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장산지구에서는 탐방로를 개선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관광지로서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한국여성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회장 김옥경)가 주최하는 제5회 부안군 한국여성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가 새로 도약하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는 여성농업인의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1일 상서 감다리 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도의원, 김솔지 도의원, 김현순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도연합회장 한여농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농정확금 전달식, 우수 여성농업인에 대한 표창 수여, 공연 및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안군농장화 재단에 1백만원을 기탁해 지역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회원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을 가졌다.

김옥경 부안군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리더라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추사를 통해 "한국여성농업인분들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자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농업인의 표상"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